

# 조화 (Harmony)



백승희  
산외목장

## 왜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는가?

내 나이가 한줄 씩 한줄 씩 늘어갈수록 유독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는 단어가 있다. “調和”란 단어이다. 이 말은 사전적으로는 ‘대립이나 어긋남이 없이 잘 어울림, 또는 균형이 잘 잡힘’이란 뜻이다. 왜 이 말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내 스스로 물어보곤 한다. ‘조화롭지 못해 불화한 가정, 계층간의 대립으로 조화롭지 못한 사회’ 왜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해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을까?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이 서로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치달아 이 시대를 점철시키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요즘 아이들은 참 바쁘다. 취학 전에는 유치원을 다녀야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학원을 병행하며 다닌다. 그것은 중, 고등학교를 진학해도 마찬가지이며 그 시간 점점 늘어간다. 그러니 당연히 가족과의 대화가 부족하여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식은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을 원하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오로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가족은 있으나 가정은 붕괴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정은 집안의 정원이며 그 곳은 가족간의 대화의 장소이며 어울림의 장소이다. 따듯한 엄마의 품과 같은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미취학의 아동은 왜 유치원에 가야 할까? 그 시간에 그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놀면 안 되는 것일까? ! 혹시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식들을 방치 하는 것은 아닐까? 초등학생은 학교에서의 지식 습득으로 충분하지는 않을까? 중, 고등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유롭게 하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기존의 대학교 대부분을 없애고 소수의 대학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면 어떨까?

### 상대방을 헤아려보는 마음 절실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어릴 적을 생각하며 자식을 훈육하고 자식은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이니 부모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잘 헤아려 믿고 따르다면 가족끼리 신뢰가 생기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대화에서 나보다는 상대방

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한다면 반목과 대립보다는 화합의 시간들을 만들 수 있다.

가령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먼저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파트를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건축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 사람들이 주거하게 된다. 이런 건축과정에는 수많은 인력이 요소요소에 적절히 필요하게 된다. 건축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건축사가 필요하고 그 설계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시공업자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는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만 제대로 완성된 구조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한 가지의 필요 요소가 누락된다면 부실 공사로 건축된 위험한 아파트가 완성되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건축사가 설계도를 완성시키면 그 설계대로 완성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즉 지방공사를 담당하는 굴삭기 팀, 기둥을 세?! 李? 붙이는 크레인 기사들과 용접공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기술자와 레미콘 기사들, 그리고 페인트 업자, 전기 가설자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 각기 서로가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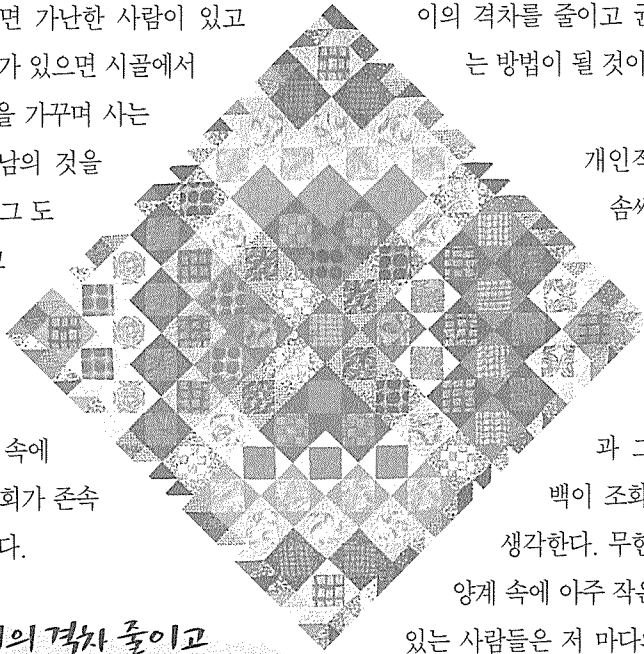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꼭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 축산업자, 어부나 사람이 설 수 있는 집을 짓는 사람, 추위나 더위를 막

아주는 의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며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 속에서 피어나는 균형속의 조화에 있다. 추운 겨울이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오고 화려하게 꽃 피고 열매 맺는 여름과 가을이 있으면 앙상한 가지로 찬 바람이겨 내면 부활을 꿈꾸는 겨울이 다시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자연의 조화라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지위와 명예가 높은 자가 있으면 시골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세상을 가꾸며 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있다면 그 도둑을 잡는 경찰이 있고 조금 모자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것이 '正'과 '反'의 조화 속에 사람이 살아가고 그 사회가 존속되어 가는 것이 분명하다.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 줄이고 조화되는 방법찾기

요즘 세간에서는 한 높은 사람의 골프 회동으로 한창 시끄럽다. 약 90여 년 전 대한 독립을 목 놓아 외치던 날,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불법 사건에 연루된 지역 유지들과 돈 내기 골프를 치

고 있었다고 한다. 과연 이런 행동을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해 줄 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를 갖고 힘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더욱 더 낭떠러지로 밀쳐 내려고만 한다. '花無十日紅' 이란 말처럼 명예나 권력은 오래 가지 않으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잡아가며 조화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을 모자란 글 숨씨로 피력해 본 이 짧은 글에서 나는 이 사회에서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이, 또는 흑과 백이 조화를 이루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무한대의 우주에서 작은 태양계 속에 아주 작은 지구라는 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마다의 나라를 세워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 각기 다른 사회는 서로들의 법들을 만들어 아용다용 다투어 가며 시간 속에서 늙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같은 인생 속에서 대립이나 어긋남 없이 잘 어울려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㉟